

## 학령기 행동문제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서의 또래관계\*

Peer Relationships a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Behavior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정 선 진\*\*

Jung, Sun Jin

이 은 해\*\*\*

Rhee, Un Hai

고 윤 주\*\*\*\*

Koh, Yun Joo

김 영 신\*\*\*\*\*

Kim, Young Shin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peer variables an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of 290 4th and 5th grade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The children completed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and the peer nomination questionnaire. Parents and teachers rated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using the Connors' Rating Scale. Results indicated that rejected children had more behavior problems than popular, average, or neglected children. Socio-emotional supports from a close friend and satisfaction with the friend were negatively related to behavior problems. Behavior problems were mainly predicted by low peer acceptance, and behavior problems of rejected children were negatively and strongly related to socio-emotional supports of a close friend. In conclusion, peer rejection was a risk factor and a friend's support was a protective factor for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in 4th and 5th graders.

Key Words : 또래 관계(peer-relationships),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 위험요인(risk factor)

\* 본 논문은 2000년도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연구원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교수

\*\*\*\* 연세대학교 아동학과 강사

\*\*\*\*\*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정신과

## I. 서론

가정과 학교 등의 주변환경에서 행동문제를 보이는 아동은 쉽게 관찰될 수 있다. 연령에 맞지 않는 미성숙한 행동을 보이거나 산만하고 공격적인 행동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아동은 또래와 어울리거나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행동문제와 또래의 거부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은 또래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한 아동들은 그 결과로 행동문제를 발달시키게되는 부정적인 순환 작용이 일어난다.

또래 및 친구관계는 성숙한 사회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해주고, 아동 자신이 주위로부터 사회정서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통해서 안정된 정서를 갖게 도와주며, 자아 개념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Bukowski & Hoza, 1989). 반면에 또래집단의 가치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아동은 또래집단에 적합한 행동유형을 습득하지 못하므로 집단에서 수용되지 못하고 거부된다(Shaffer, 1994). 또래로부터 거부된 아동은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며,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 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다양한 심리적인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나타내게 된다(Hartup, 1983; Parker & Asher, 1987). 따라서 또래관계는 행동문제의 유발을 촉진하는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행동문제의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아동의 또래관계 연구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집단 내에서의 수용 및 거부를 나타내는 또래 지위를 측정하는 방법이

고, 다른 하나는 이원적인(dyadic)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Bukowski와 Hoza (1989)에 따르면, 또래지위는 사회적 적응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반영해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또래지위와 행동문제의 관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국외 선행연구(Bukowski & Newcomb, 1984; Coie, Dodge, & Coppotelli, 1982; French & Wass, 1985)와 국내 연구(이미순, 1995; 임연진, 1999) 모두에서 어느 정도 일관된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거부아는 인기아에 비해서 공격성과 관련된 행동문제를 많이 보인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직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 않으며, 친구의 지원이 사회적 부적응 문제를 낮추거나(한미현, 유안진, 1996; Schwartz, McFadyen-Ketchum, Dodge, Pettit, & Bates, 1999), 또는 사회적 자신감을 높여주기(고운주, 김영신, 노주선, 2000) 때문에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감소시킨다는 소수의 연구 결과가 있을 뿐이다. 더 나아가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의 질을 동시에 조사한 연구는 흔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행동문제의 유무와 또래관계의 두 가지 측면-즉, 또래 지위와 친구관계의 질-이 서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행동문제는 아동이 가정이나 학교, 지역사회에서 생활해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 생겨난 행동적, 심리적 부적응의 결과로서(한미현, 유안진, 1995), 사회적 기대나 규범

에서 벗어난 행동이라고 판단될 때 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정의된다(Kauffman, 1980; Ross, 1974).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문제 중에서 또래 및 성인들에 의해서 쉽게 발견되는 외현화된 행동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사회적 적응을 반영해주는 행동문제의 유형과 원인은 연구자의 정의에 따라 그리고 측정하는 도구에 따라 다양하게 기술될 수 있다. 이 중 표준적인 진단도구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위한 진단 및 통계편람 4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fourth edition : 이하 DSM-IV)에서는 외현화된 행동장애를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등이 포함된 주의력결핍과 파괴적 행동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APA, 1994).

이들의 진단 기준과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는 세세한 면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못하고,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하며, 시작한 일을 끝내지 못하고 과제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하고, 물건들을 자주 잃어버리며, 쉽게 산만해지고, 일상적으로 하는 일도 자주 잊어버리는 주의력 결핍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뛰어다니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지나치게 말이 많고,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하거나,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는 등의 과잉행동 또는 충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임신부의 음주와 흡연, 각성수준의 문제, 신경계 기능장애, 부모 및 또래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 방식 등이 보고되고 있다(조수철, 최진숙, 1990;

Wenar, 1998).

둘째, 품행 장애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고 나이에 맞는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는 행동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신체적인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사용하거나, 동물이나 사람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등 사람이나 동물에 대하여 지나친 공격적인 행동, 방화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고의로 부수는 등의 기물 파손, 거짓말이나 절도, 가출, 무단결석 등의 심각하게 규칙 위반을 하는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품행장애는 아동의 내적 충동에 대한 통제의 결여, 외적 자극에 대한 과잉반응, 낮은 조망수용 능력, 도덕성 발달의 문제와 부적절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방식, 갈등이 많은 학교 분위기 및 공격적인 대중 매체, 부정적인 또래와의 관계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Dishion, Patterson Stoolmiller & Skinner, 1991; Freedman, 1986; Wenar, 1998; Wicks-Nelson & Israel, 1984).

따라서 부정적인 또래관계는 아동의 외현화된 문제의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또래지위와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 8학년을 대상으로 한 Coie, Dodge와 Coppotelli(1982)의 연구에서 '인기아'는 협동성 및 주도성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고, 싸움 걸기, 파괴적인 행동, 도움 요청하기 등의 부적응적 행동의 점수는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무시아'는 수줍음과 위축문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고, '거부아'는 '인기아'와 반대의 결과를 보였다.

French와 Wass(1985)는 2학년과 5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교사와 부모에게 아동의 행동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교사는 '거부아'가

‘인기아’나 ‘무시아’에 비해 학업문제, 공격성, 적대행동 등 많은 문제행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부모 또한 ‘거부아’가 ‘인기아’나 ‘무시아’에 비해 사회적 위축, 과잉행동, 공격성, 비행을 더 많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거부아’와 ‘보통아’를 비교했을 때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Bukowski와 Newcomb(1984)은 초등학교 5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사회적 행동에 대한 또래 평가와 또래집단 내에서의 수용정도를 반영하는 사회적 선호도 점수와 상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 및 미성숙 요인은 사회적 선호도와 부적 상관을 보였고, 주도성과 학교생활에서의 유능감은 사회적 선호도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국내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아기의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 정서적 행동과 귀인에 대한 이미순(1995)의 연구에서 ‘거부아’는 ‘인기아’, ‘평균아’, 그리고 ‘무시아’보다 적대적-공격적이고, 과활동적이며, 주의가 산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 사회적 적응과 행동 특성에 관한 김윤경(1998)의 연구에서 ‘거부아’는 외로움과 사회적 회피수준이 높았고 학교 성적도 낮았다.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에 관한 임연진(1999)의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적 특성은 역시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인기아’와 ‘보통아’는 ‘거부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을 많이 했고, ‘무시아’는 ‘인기아’에 비해 불안-위축 정도가 높았으며, ‘거부아’는 다른 세 집단 아동에 비해 적대적-공격성이 높았다.

초등학교 3, 4학년 아동의 학교적응과 또래 관계를 조사한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의 연구에서도 과활동적이고 공격적인 특성은 ‘거

부아’에게서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 경쟁심을 많이 느끼는 아동에게서 높다고 하였으며, 불안과 위축된 행동은 ‘무시아’나 상호적인 친구가 적은 아동에게서 높다고 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집단에서 거부된 아동은 공격성, 파괴적 행동, 과활동성, 외로움, 학업문제, 공격성, 적대적 행동, 주의가 산만한 행동의 빈도가 높게 나타났고, 무시아는 불안-위축, 강박적인 특성에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외현화된 행동문제는 거부아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래 지위는 집단에서의 적응 정도나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행동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원적인 친구관계는 자아존중감이나 도덕성 발달 같은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또래 지위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며(Bukowski & Hoza, 1989; Hartup, 1983), 아동의 행동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보다는 행동문제가 증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요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Bagwell, Newcomb 그리고 Bukowski (1994)는 장기 종단적 연구에서 친구가 있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학업자신감, 인기도, 가정과 학교등의 사회적 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이러한 장점은 성인 초기까지 지속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의 4학년과 6학년 아동의 친구관계와 행동문제를 조사한 한미현과 유안진(1996)의 연구에 의하면, 친구의 지지는 낮은 수준의 불안, 위축, 미성숙한 행동과 관련된다고 보고하였다.

친구관계의 보호적 기능에 초점을 둔 연구들 중에서 5학년을 대상으로 한 Parker와 Asher (1993)의 연구에 따르면, 집단으로부터 거부되거나 무시된 아동도 한 명 이상의 친한 친구를 가지고 있을 때 부적응의 위험은 낮아진다고

하였다. 학교 폭력 및 집단 따돌림은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교 부적응의 단적인 예가 되는데, 친구관계가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증대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Boulton, Trueman, Whitehand와 Amaty (1999)는 교실에서 상호적인 친구가 있는 아동이 친한 친구가 없는 아동보다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의외있게 적었다고 보고하면서, 친구가 있는 것이 괴롭힘의 보호요소라고 하였다. Hodge, Malone 그리고 Perry(1997)도, 지지적인 친구가 없는 아동들에게 행동문제는 또래 괴롭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공격적인 아이들은 친한 친구로부터 지지와 보호가 적은 또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행동문제가 있는 아동 중에서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 집단 괴롭힘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과를 종합하면, 친한 친구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부적응 행동 및 행동문제를 완화시켜주고 행동문

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집단 괴롭힘의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상의 문헌분석을 기초로 또래관계의 어떠한 측면이 행동문제의 ‘위험 요인’ 또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행동문제는 또래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아동이 맺고 있는 친구 관계의 질과 행동문제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 1) 행동문제와 관련된 친구의 긍정적 지원 기능은 어떠한 것인가?
  - 2) 행동문제는 친구와의 갈등 및 경쟁과 관련이 있는가?
  - 3) 행동문제는 친구에 대한 만족감과 관련이 있는가?
3.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의 질은 아동의 행동문제를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평촌 지역에서 임의로 선정된 2개 초등학교의 4학년과 5학년에서 각각 2학급씩을 선정한 후, 8학급의 남녀 아동 모두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의 누락이 있는 응답자를 제외한 후 최종 연구대상은 4학년 155명(남아 68명, 여아 87명), 5학년 135명(남아 64명, 여아 71명)으로 총 290명이었다. 이 시기의 아동이 선정된 이유는, 아동 중기 및 청소년 이전 시기 (preadolescence)가 동성 또래 집단 및 동성 친구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Buhrmester & Furman, 1986; Sullivan, 1953).

### 2.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세가지로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Conners** 평가척도, 친구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그리고 아동의 또래집단 내 지위를 조사하기 위한 또래지명 설문지가 사용되었다.

행동문제의 측정은 표준화 연구(김영신, 고윤주, 노주선, 진행중)를 위하여 번역되어 있는 **Conners** 평가척도(Conners, 1990)에서 외현화된 행동문제와 관련된 하위영역만을 사용하였다. **Conners** 평가척도는 3세에서 17세 아동의 행동문제를 평가하며 평가자에 따라서 교사 평가척

도와 부모 평가척도로 나뉜다. 각 행동은 심각도에 따라 0점(전혀 혹은 그렇지 않다), 1점(때때로 그렇다), 2점(자주 그렇다), 3점(매우 자주 그렇다)으로 표시하게 되어있다. 교사 평가척도는 '품행문제', '과잉행동 문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성 문제'의 3가지 하위영역 28개 문항을 사용하였고, 부모 평가척도는 '품행문제'와 '충동성-과잉행동 문제' 영역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도구의 내적 합치도를 검증하기 위해 산출한 Cronbach's  $\alpha$  점수는 교사 평가척도에서 .90~.94, 부모평가척도에서 .76이었다.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도구로는 초등학교 아동에게 적용하도록 개발된 이은혜와 고운주(1999)의 친구관계의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친구관계의 질 척도는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에 대해서 관계의 질을 평정하도록 하였는데, 각 문항에 대한 반응은 크기가 다른 4개의 원을 제시한 4점 척도로서 '아주 많이 그렇다'(4점), '많이 그렇다'(3점), '조금 그렇다'(2점), '아주 조금 그렇다'(1점)로 구분되어 있다. 친구관계 질 척도의 하위영역은 친구의 긍정적 지원 기능인 6개 영역과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을 측정하는 갈등과 경쟁, 그리고 친구관계에서 느끼는 만족감 등 9개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역별로 4문항씩 총 3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구관계의 여섯 가지 기능은 정서적 안정, 신뢰, 도움, 친밀감, 인정, 그리고 교제의 즐거움이다. 본 연구의 대상을 통해서 산출된 Cronbach's  $\alpha$  점수는 '정서적 안정'이 .82, '신뢰'는 .82, '도움'은 .76, '친밀감'은 .73, '인정'은 .79, '교제의 즐거움'은 .74, '갈등'은 .78, '경쟁'은 .87, 그리고 '만족감'은 .74였다.

아동의 또래집단 내의 지위를 조사하기 위해 '또래 지명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학급의 친구들 중 '가장 좋아하는 친구', '교실에서 같이 앉

고 싶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은 친구'를 각각 3명씩 지명하고, '가장 싫어하는 친구', '교실에서 같이 앉고 싶지 않은 친구', '생일에 초대하고 싶지 않은 친구'도 각각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아동의 친구관계에서 청소년기까지는 동성친구에 대한 선호가 강하다는 지적(Erwin, 1998)과 이성애에 대한 지명평정은 대체로 부정적이 되어 성에 편파되기 쉽다는 선행연구(Asher & Hymel, 1981)에 근거하여 동성의 또래만 지명하도록 제한하였다. Coie와 Dodge(1983)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또래의 긍정적 지명과 부정적 지명이 분석되었다. 각 아동이 받은 긍정적 지명 수의 합과 부정적 지명 수의 합을 각각 계산하여 학급 내에서 Z 표준점수로 환산한 다음, 사회적 선호(social preference)와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점수를 계산하였다. 사회적 선호 점수는 긍정적 지명 점수에서 부정적 지명 점수의 차를 사용하였고, 사회적 영향 점수는 긍정적 지명 점수와 부정적 지명 점수의 합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한 긍정적 지명 점수, 부정적 지명 점수, 사회적 선호 점수와 사회적 영향 점수를 이용하여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양면성의 5가지 또래지위로 구분하였다.

### 3. 연구절차 및 분석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를 포함하여 사전 훈련된 검사자 4명이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수집 전에 결과는 비밀로 할 것임을 알려준 후 친구관계의 질 척도와 또래 지명 설문지의 순서로 학급단위로 실시하고, 교사와 부모에게 Conners 평가척도를 평정하도록 의뢰하였다.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행동문제는 각 하위영역의 문항반응을 합한 점수를 사용하였고, 친

구관계의 질은 각 하위영역의 평균점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문제와 관련된 분석을 하기 전에 본 연구 변인들에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으로는, 첫째, 학령기 아동의 또래지위에 따라 행동문제의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친구관계의 기능, 갈등, 경쟁 그리고 만족감과 행동문제 하위영역간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를 친구관계의 질과 또래지위가 어떻게 예언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본 연구의 변인들에서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전 분석한 결과, 먼저 행동문제에서는 교사와 부모가 보고한 모든 행동문제에서 성차가 유의했는데(교사척도 : 품행문제  $F(1, 288)=12.13$   $p<.001$ , 과잉행동문제  $F(1, 288)=23.59$   $p<.001$ , 주의력결핍-과동성문제  $F(1, 288)=29.58$   $p<.001$ ; 부모척도 : 품행문제  $F(1, 288)=7.85$   $p<.01$ , 충동성-과잉행동문제,  $F(1, 288)=6.05$   $p<.05$ ), 학년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즉, 남아가 여아보다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구관계의 질에 관해서 살펴보면, 몇 개의 변인들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유의하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고(정서적 안정  $F(1, 288)=10.80$   $p<.01$ , 신뢰  $F(1, 288)=3.98$   $p<.05$ , 친밀감  $F(1, 288)=23.14$   $p<.001$ , 인정  $F(1, 288)=5.90$   $p<.05$ ) 남아는 여아보다 경쟁적이었다( $F(1, 288)=3.91$   $p<.05$ ). 그리고 5학년이 4학년보다 친구로부터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을 포함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더 많이 받고 있다고 지각하였다(정서적 안정  $F(1, 288)=8.16$   $p<.05$ , 친밀감  $F(1, 288)=9.11$   $p<.05$ , 인정  $F(1, 288)=5.88$   $p<.05$ ).

#### 1. 또래지위와 행동문제

각 학급 내에서 아동의 또래지위를 Coie와 Dodge(1983)의 절차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인기아'는 전체 아동의 27.6%, '보통아'는 34.1%, '무시아'는 15.1%, '거부아'는 20.7%, '양면성 아동'은 2.1%로 나타났다. 보통지위의 아동이 가장 많았고, 양면성 아동은 6명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양면성 아동을 연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를 대상으로 하여 가장 작은 집단의 아동 수를 기준으로 남녀 동수 44명씩 각각 무선 표집하였다. 이상의 네 가지 또래 지위 집단을 대상으로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 방법으로 Scheffé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을 보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교사와 부모의 보고 모두에서 또래지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교사의 보고를 먼저 살펴보면, '품행문제', '과잉행동 문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에서 '거부아'는 다른 집단, 즉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보다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단,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

<표 1> 또래지위에 따른 행동문제 하위영역별 평균, 표준편차 및 일원변량분석 결과 (N=176)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F
	M (SD)	M (SD)	M (SD)	M (SD)	
<b>교사</b>					
품행	10.05 <sup>a</sup> (3.60)	10.59 <sup>a</sup> (3.62)	9.86 <sup>a</sup> (3.56)	13.93 <sup>b</sup> (6.94)	7.37***
과잉행동	8.64 <sup>a</sup> (2.90)	9.02 <sup>a</sup> (3.81)	8.50 <sup>a</sup> (2.85)	12.09 <sup>b</sup> (6.04)	7.53***
주의력결핍-과동성	9.86 <sup>a</sup> (3.00)	11.64 <sup>ab</sup> (4.50)	10.57 <sup>a</sup> (2.92)	13.25 <sup>b</sup> (4.99)	6.09***
<b>부모</b>					
품행	10.23 <sup>ab</sup> (2.25)	10.32 <sup>ab</sup> (2.73)	9.50 <sup>a</sup> (1.55)	11.39 <sup>b</sup> (3.29)	4.13**
충동성-과잉행동	5.27 <sup>a</sup> (1.45)	5.39 <sup>ab</sup> (1.48)	5.50 <sup>ab</sup> (1.73)	6.41 <sup>b</sup> (2.06)	4.12**

\* p<.05 \*\* p<.01 \*\*\* p<.001 abc : 같은 문자끼리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 없음.

에서는 '보통아'가 '거부아'와 나머지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했지만 두 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부모의 보고를 살펴보면, 먼저 '품행문제'에서 '거부아'는 '무시아'보다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고, '인기아'와 '보통아'는 이 두 집단의 중간에 위치했으며 차이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한편, '충동성-과잉행동 문제'는 '거부아'가 '인기아'보다 문제가 많다고 보고되었는데, '보통아'와 '무시아'는 그 중간에 위치했으며 다른 집단들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종합하면, '거부아'는 '인기아'보다 행동문제를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관찰되었다. 그러나 교사와 부모의 관찰이 일치하지는 않았는데, 교사는 '거부아'를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을 한 묶음으로 보고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모들은 '보통아'나 '무시아'들도 '거부아' 또는 '인기아'와 유사하게 행동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부모가 교사들보다 네 집단간의 유사점과 차이를 더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친구관계의 질에 속한 9개 하위영역들과 행동문제의 하위영역들간의 단순 상관계수를 산출하여 <표 2>에 제시하였다. 이 분석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 아동 전체가 포함되었다.

<표 2>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 간의 단순 상관계수 (N=290)

	교 사			부 모	
	품행	과잉행동	주의력결핍-과동성	품행	충동성-과잉행동
정서적 안정	-.09	-.08	-.18**	-.14*	-.03
신뢰	-.03	.01	-.07	-.15**	-.10
도움	.01	.04	-.05	-.11	-.07
친밀감	.01	.03	-.13*	-.07	.02
인정	.01	-.01	-.13*	-.06	.01
교제의 즐거움	-.04	.01	-.08	-.11	-.03
갈등	.18**	.16**	.17**	.17**	.14**
경쟁	.06	.11	.09	.08	.07
만족감	-.09	-.08	-.14*	-.13*	-.05

\*p<.05 \*\*p<.01

<표 2>에서 친구의 지원 기능과 관련된 결과를 보면, 교사가 보고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와 그리고 부모가 보고한 ‘품행문제’에서 부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교사가 평가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는 친구의 지원 기능 중 ‘정서적 안정’, ‘친밀감’, ‘인정’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부모가 평가한 ‘품행문제’는 ‘정서적 안정’, ‘신뢰’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친구관계의 질 중에서 이들 영역의 행동문제와 비교적 일관되게 관련된 변인은 ‘정서적 안정’과 ‘신뢰’였다. 즉, 아동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신뢰와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지각할수록 교사와 부모가 관찰한 행동문제의 수준이 높았다.

친구 관계의 부정적인 측면인 ‘갈등’은 교사와 부모가 보고한 행동문제의 모든 하위영역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관계에서 갈등이 많을수록 행동문제도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경쟁’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감’은 교사가 평가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 부모가 평가한 ‘품행문제’와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아동이 친구관계에 만족하지 못할수록 교사가 보고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 부모가 보고한 ‘품행문제’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하면, 친구의 지원이 부족하거나 친구와 갈등이 많은 아동들이 행동문제도 많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의한 상관계수의 크기가 .14~.18로 대체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 3. 또래지위,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계

학급 내에서 아동이 선호되고 있는 정도와

이원적인 친구관계를 동시에 고려할 때, 이들 두 변인이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아동의 또래지위와 친구관계 질의 어떠한 하위영역이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설명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또래지위를 구별하는 기초자료이며 연속적 자료인 ‘사회적 선호점수’, ‘사회적 영향점수’와 친구관계의 질을 측정하는 9가지 하위영역인 ‘정서적 안정’, ‘신뢰’, ‘친밀감’, ‘도움’, ‘교제의 즐거움’, ‘갈등’, ‘경쟁’, ‘만족감’을 예언변인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포함된 다수의 변인들에서 성차와 학년차가 유의했으므로 두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성’과 ‘학년’을 위계적 회귀 분석의 1단계 분석에 포함시켰고,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이상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 변인들이 포함되었다.

교사가 평가한 행동문제인 ‘품행문제’, ‘과잉행동 문제’, ‘주의력결핍-과동성 문제’에 대한 회귀분석의 2단계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교사가 관찰한 행동문제 중에서 ‘품행문제’와 ‘과잉행동문제’는 ‘사회적 선호’와 ‘갈등’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었고, ‘주의력 결핍-과동성 문제’는 ‘사회적 선호’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회귀 분석의 1단계에 포함된 ‘성’과 ‘학년’ 변인 그리고 2단계에서 유의했던 변

<표 3> 교사가 평가한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선호, 사회적 영향, 친구관계 질의회귀 분석 결과 (N=290)

품행	과잉행동	주의력결핍-과동성
사회적 선호 -.25***	사회적 선호 -.26***	사회적 선호 -.25***
갈등 .15**	갈등 .12*	
(F=4.75*** R'=.18)	(F=6.04*** R'=.22)	(F=5.56*** R'=.21)

\*p<.05 \*\*p<.01 \*\*\*p<.001

인들에 의해서, '품행문제'는 18%, '과잉행동문제'는 22%, '주의력결핍-과잉행동성 문제'는 21%가 설명되었다. 즉, 아동의 행동문제는 또래관계의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낮은 또래수용도와 친구 관계에서의 잦은 갈등을 통해서 의미있게 예언될 수 있다.

부모가 보고한 행동문제인 '품행문제', '충동성-과잉행동 문제'를 교사의 보고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부모가 보고한 '품행문제'와 '충동성-과잉행동 문제'는 '사회적 선호'와 '사회적 영향'에 의해서 유의하게 설명되었다. 회귀 분석의 1단계에 포함된 '성'과 '학년' 변인 그리고 2단계에서 유의했던 변인들에 의해서, '품행문제'는 12%, '충동성-과잉행동 문제'는 11%가 설명되었다.

즉, 교사의 보고에 기초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급 내에서 또래로부터의 낮은 선호도가 아동의 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었다. 그러나 교사의 관찰에서와는 달리 부모들의 관찰에 따르면, 친구로부터 선호되는 정도와 거부되는 정도가 모두 높은 경우, 즉 높은 '사회적 영향' 점수 역시 행동문제를 예언하고 있었다. 교사의 보고와 부모의 보고에 기초

한 분석 결과를 모두 종합하면, 아동의 행동문제는 친구관계의 질보다는 학급 내에서의 급우들의 선호 및 거부 정도에 의해서 더 잘 예측될 수 있었고, 교사와 부모의 관찰이 다소 다른 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부모가 평가한 행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선호, 사회적 영향, 친구관계 질의 회귀 분석결과 (N=290)

품행		충동성-과잉행동	
사회적 영향	.17**	사회적 선호	-.19**
사회적 선호	-.15**	사회적 영향	.12*
(F=2.87*** R <sup>2</sup> =.12)		(F=2.50** R <sup>2</sup> =.11)	

\*p<.05 \*\*p<.01 \*\*\*p<.001

회귀분석은 행동문제를 별로 보이지 않는 집단도 포함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친구관계의 질이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 평가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또래 지위가 다른 집단 별로, 각각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간의 상관 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친구관계 질의 여러 하위변인과 행동문제간 유의한 상관관계수 만큼 또래지위

<표 5> 또래지위별 행동문제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 친구관계 질 하위 변인들 (N=290)

	교사			부모	
	품행	과잉행동	주의력결핍-과잉행동성	품행	충동성-과잉행동
인기아	-	-	-	-	-
보통아	-	갈등(.25*)	갈등(.25*)	신뢰(-.32**) / 만족(-.29**)	-
무시아	-	-	정서적 안정(-.31*)	-	-
거부아	신뢰(-.30*) / 만족(-.26*)	-	-	도움(-.26*) / 교제의 즐거움(-.40**) / 만족(-.40**)	경쟁(.27*) / 만족(-.26*)

\*p<.05 \*\*p<.01

집단별로 제시하면 <표 5>와 같다.

<표5>를 보면, '인기아' 집단에서는 유의하게 관련된 친구관계의 질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아' 집단에서는 친구와 갈등이 많을수록 교사가 보고한 '과잉 행동'이나 '주의력 결핍-과잉성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보고한 '품행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시아' 집단에서는, 친구의 정서적 지원이 높을수록 교사가 보고한 '주의력 결핍-과잉성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거부아' 집단에서는, 친구에 대한 '신뢰'와 '만족감'이 높을수록 교사가 보고한 '품행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 그리고 친구의 '도움', '친구를 만나서 얻는 즐거움' 그리고 친구에 대한 '만족감'이 높을수록 부모가 보고한 '품행문

제'가 적게 나타났고, 친구와 덜 경쟁할수록 그리고 친구에게 만족할수록 부모가 보고한 '충동성-과잉행동 문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하면,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에게 친구와의 '갈등' 또는 '경쟁'은 어느 정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는데 보호요인으로써 친구지원의 역할은 '거부아'들에게서 특히 두드러졌다. 따라서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분석한다면 친구관계의 질보다는 또래 지위가 아동의 행동문제와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친구의 지원이 높을수록 행동문제가 감소할 가능성은 훨씬 증가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또래관계가 아동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문제의 위험 요인이면서 또한 보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또래관계의 두 가지 차원인 또래지위와 친구관계가 아동의 행동문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를 연구문제 순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 '거부아' 집단간에 행동문제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거부아'가 다른 집단에 비해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부아가 공격성, 적대행동, 과잉행동과 주의가 산만한 행동적 특성을 인기아나 보통아보다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Coie, Dodge & Coppotelli, 1982; French & Wass, 1985; 이미순, 1995;

이은혜 외, 2001)와 일관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데, 첫째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것이 아동의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서 잠재된 행동문제를 더욱 확대시켰을 수 있다. 둘째, 또래로부터 거부됨으로써 행동문제를 증재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되고, 이로 인하여 이미 나타난 행동문제가 지속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셋째, 행동문제를 가진 아동들이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또래로부터 거부되었다고 할 수도 있다.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또래의 거부하는 아동의 행동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는 부분적으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즉, 친구의 사회정서적

지원이 높다고 지각하고 있는, 또는 친구에게 애정과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아동일수록 행동문제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구관계가 사회적 지원으로서 행동문제의 심화를 막아주는 보호 요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게 한다. 그러나 유의한 상관을 보였던 친구관계 변인들과 행동문제의 상관은 .14~.18로 비교적 낮았다.

한편, 친구관계의 부정적 측면인 '갈등'도 행동문제의 하위영역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는데, 친구와 갈등이 많다고 지각하는 아동들에게서 행동문제가 많이 발견되었다. 친구 관계에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이 미숙한 아동들이 또래들 사이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배선영(1999)과 Shantz(1986)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면, 갈등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은 또래의 거부에 의해서 중재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즉, 친구와 갈등해결을 잘 못하는 아동들이 또래로부터 거부되기 쉽고, 또한 그러한 이유로 행동문제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회적 선호와 갈등간의 상관계수가 유의하지 않았고 ( $r=-.11, p=.07$ ), 회귀분석에서 사회적 선호도와는 독립적으로 친구와의 갈등이 행동문제들을 유의하게 예언했던 점을 볼 때, 또래거부와는 무관하게 갈등을 자주 일으키는 아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 행동문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셋째, 또래지위와 친구관계의 질을 함께 고려하여 행동문제와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사회적 선호' 및 '사회적 영향' 점수와 친구관계의 질에 포함되는 하위 변인들을 예언 변인으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행동문제는 친구관계의 질보다는 또래 지위에 의해서 더 많은 부분이 설명됨을 알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행동문제와 같은 부적응의 결과는 또래 지위에 의해서 더 잘 예언되고, 이원적인 친구관계의 질은 발달의 긍정적인 측면을 더 잘 예언한다는 Bukowski와 Hoza의 (1989)의 주장을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이 또래지위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단지 친구관계의 질이 행동문제와 관련성이 낮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었다. 긍정적인 친구관계의 질이 행동문제의 보호 요인이 된다면, 친구의 지원은 행동문제를 적게 보이는 아동보다는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아동들에게 유용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또래 지위별로 집단을 나누어 친구관계의 질과 행동문제의 관련성을 조사해보았는데, 기대했던 것처럼 '인기아' 집단에서는 친구의 지원과 행동문제의 상관성이 전혀 유의하지 않았던 반면, '거부아' 집단에서는 몇 가지 형태의 친구 지원과 행동문제의 상관성이  $-.26 \sim -.40$ 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위의 두 가지 분석 결과는 또래지위와 친구관계가 아동에게 어떻게 다른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 즉, 또래 집단에서 한 아동의 수용 또는 거부 지표인 또래 지위는 아동의 부적응적 행동문제를 잘 예언해줄 수 있다. 그리고 친구관계의 질은 집단에서 거부된 아동들이 행동문제를 어느 정도나 갖게될 것인지를 예언해줄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는 또래관계의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에 의해서 더 잘 예언된다고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측정하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의 보고를 모두 활용하였다. 전반적인 결과에서 교사와 부모의 보고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하면 교사와 부모가 아동에 대해서 다소 다른 측면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또래지위와 행동문제의 관련성에 관해서, 교사는 '거부아'의 행동문제는 민감하게 관찰하고 있는 반면, 다른 세 집단, 즉 '인기아', '보통아', '무시아'에게서 나타나는 행동문제의 차이를 변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거부아'의 문제는 물론이고, '보통아'나 '무시아'도 '인기아'보다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차이는 교사와 부모가 서로 다른 맥락에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 집단으로 아동을 관찰하고 있는 교사들에게는, 눈에 띄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급우들이 싫어하는 일부 아동들의 문제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반면에 자신의 자녀를 관찰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학급에서 급우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와 무관하게 자녀의 일상적인 행동에 관심을 기울일 것이므로 사소한 행동문제도 민감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의 보고에서는 행동문제를 예언하는 변인으로 '사회적 선호'와 친구 사이의 '갈등'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부모의 보고에서는 '사회적 선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향'도 유의한 변인이었으며, 한편 친구 사이의 '갈등'은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적 영향' 점수는 긍정적 지명이든 부정적 지명이든 지명을 많이 받은 아동들에게서 높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선호' 점수는 일부의 급우들에게는 거부당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류의 급우들에게는 수용되는 아동과 보통아동의 차이를 변별하지 못하지만 '사회적 영향' 점수는 이들의 차이를 변별한다. 따라서 '사회적 영향' 점수가 높은 아동들은 자신을 지지하는 급우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만 당하는 아동들보다는 학교에 더 잘 적응하고 있을 것이고, 교사에게도 큰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들은 급우들이 싫어하는 어떤 행동 특성을 가정에서도 관찰했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친구와의 '갈등'이 교사의 보고에서는 행동문제와 관련된 유의한 변인이었으나, 부모의 보고에서는 달랐던 이유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즉, 학교에서는 단체생활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친구와의 갈등은 다툼과 싸움, 괴롭힘 등으로 외현화되어 교실에서는 쉽게 눈에 띄어 아동에 대한 교사의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된다(Erwin, 1998). 따라서 갈등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학교와는 달리 가정에서는 친구와의 갈등이 아동의 문제를 예측하는 충분한 요인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교사와 부모가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아동을 관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관찰의 결과가 전반적으로 일관성을 보이는 것은 본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대상이 경기도 지역의 일부에서 표집되었고, 또래 지위에 따른 행동문제의 차이 분석에서는 집단 간 비교를 위해 대상의 수가 많이 축소되었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행동문제가 아동에게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조수철과 신윤오(1994)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를 가진 아동이 품행문제를 함께 가진 경

우는 3.4%, 주의력결핍-과잉행동 문제와 행동 문제와 비행문제가 함께 나타난 경우는 8.5%로 보고하였으며,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김승태, 정유숙, 김지혜와 홍성도(1996)의 연구에서도 학습문제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을 동시에 보이는 경우가 44%로 보고되었다. 즉 아동은 한 가지의 행동문제 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문제를 동시에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행동문제가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Conners(1990)의 행동문제 측정 도구에 포함된 하위영역 중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내면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는 '무시아'들의 행동 문제를 과소평가 할 가능성이 있으나 내면화된 문제행동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부적응 행동영역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내면화된 문제와 또래 관계의 관련성에 대해서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래관계인 집단내의 또래지위와 친한

친구와의 관계의 질을 동시에 평가했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아동, 또래, 부모, 교사 모두를 자료 수집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공유된 방법의 변량(shared method variance)'에 의한 오류, 즉 한 응답자의 자료만을 사용할 때 변인들간의 관련성이 실제보다 높아지게 되는 오류를 방지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면, 또래와의 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우들과의 원만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친한 친구와의 갈등은 행동문제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었고, 친구관계에서 얻는 사회 정서적인 지원과 만족감은 행동문제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의 행동문제를 완화하고 또한 잠재되어 있는 행동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래로부터 수용되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과 동시에 친밀한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고윤주, 김영신, 노주선 (2000). 학령기 아동의 행동 문제, 또래의 수용, 친구의 지원과 사회적 자신감간의 구조 모델. 한국발달심리학회, 13(2), 65-78.
- 김승태, 정유숙, 김지혜, 홍성도 (1996). 한국에서의 학습장애 아동에 대한 예비적 연구. 소아·청소년의학, 7(2), 247-257
- 김윤경 (1998).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또래관계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과 행동특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배선영 (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미순 (1995).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정서적 행동과 귀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은혜, 고윤주 (1999). 학령기 아동을 위한 친구관계의 질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2), 225-242.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임연진 (1999). 또래지위에 따른 아동의 사회적 정보처리 능력과 사회적 행동 특성. 연세대학교 대

- 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수철, 신윤오 (1994). 파탄적 행동장애의 유병율에 대한 연구. *소아·청소년의학*, 5(1), 141-149.
- 조수철, 최진숙(1990). 주의력결핍, 과잉운동장애와 행동장애 및 반항장애와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정신의학*, 15(2), 147-159.
- 한미현, 유안진 (1995). 아동행동 평가척도(CBCL)의 타당화연구. *아동학회지*, 16(2), 5-21.
- 한미현, 유안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17(1), 173-188.
- Asher, S. R., & Hymel, S. (1981). Children's without friends : Social knowledge and social skill training. In S. R. Asher & J. M. Gottman (Eds.), *The Developmental of children's friendships* (pp.273-296).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gwell, C. L., Newcomb, A. F., & Bukowski, W. M. (1998). Preadolescent friendship and peer rejection as predictors of adult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9, 140-153.
- Boulton. F. M., Trueman. M., Whitehand. C., & Amatya. K. (1999). Concurrent and longitudinal links between friendship and peer victimization : implications for befriending interventions. *Journal of Adolescence*, 22, 461-466.
- Buhrmester, D. & Furman, W. (1986). The changing functions of friends in childhood:A Neo-Sullivanian perspective. In V. J. Derlega and B. A. Winstead (Eds.). *Friendship and Social Interaction* (pp. 41-62). New York : Springer.
- Bukowski, W. M., & Hoza, B. (1989). Popularity and friendship : Issues in theory, measurement, and outcome (pp.15-45). In T. J. Berndt, & G. W. Ladd, (1989). *Peer Relationships in Child Development* (pp.71-94). New York : Wiley.
- Bukowski, W. M., Newcomb A. F. (1984). A longitudinal study of the utility of social impact sociometric classification schemes. *Child Development*, 55, 1434-1447.
- Coie, J. D.,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s in children's social status :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rmer Quarte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 A cross-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4), 557-570.
- Conners, C. K. (1990). *Manual for Conners' Rating Scales:Conners' Teacher Rating Scales, Conners' Parent Rating Scales*. Toronto, Ontario : Multi-health Systems.
- Dishion, T. J., Patterson, G. R., Stoolmiller, M., & Skinner, M. L. (1991). Family, school, and behavioral antecedents to early adolescent involvement with antisocial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72-180.
- Erwin, P. (1998). *Friendship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New York : Routledge.
- Freedman, J. L. (1986). Television violence and aggression : A rejoinder. *Psychological Bulletin*, 100, 372-378.
- French, D. C., & Wass, G. A. (1985). Behavior problems of peer-neglected and peer-rejected elementary-age children : Parent and Teacher perspectives. *Child Development*, 56, 246-252.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 In Hetherington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 Socialization, social development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 Hodges, E. V., Malone, M. J., & Perry, D. G. (1997). Individual risk and social risk as interacting determinants of victimization in the peer group.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32-1039.
- Kauffman, A. S. (1980). Issue in psychological assessment : interpreting the WISC-R intelligently. In B. B. Lahey, & A. E. Kazdin (Ed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New York : Plenum.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 Are low-accepted

-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 611-621.
- Ross, A. O. (1974). *Psychological disorders of children : A behavioral approach to theory, research and therapy*. New York : McGraw-Hill.
- Schwartz, D., McFadyen-Ketchum, S., Dodge, K. D., Pettit, G. S. & Bates, J. E. (1999). Early behavior problems as a predictor of later peer group victimization : Moderators and Mediators in the pathways of social risk.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7(3), 191-201.
- Shaffer, D. R. (1994). *Soci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3rd ed.). CA : Brooks/Cole.
- Shantz, D. W. (1986). Conflict, aggression, and peer status : An Observational study. *Child Development*, 57, 1322-1332.
- Sullivan, H. S.(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 Norton.
- Wernar, C.(1998). 발달정신병리학 : 영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이춘재외 13인(공역). 서울 : 중앙적성출판사.
- Wicks-Nelson, R., & Israer, A. C. (1984). *Behavior Disorder of Childhood*. NJ : Prentice-Hall.